

담보대출·위험자산한도 단계적 상향 추진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7.12.(일) 머니투데이(온라인), "은퇴자금인데 우르르 깨"...퇴직연금 담보대출 족쇄 풀다

-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근로자퇴직급여법(퇴직급여법) 개정을 추진한다.
- (중략)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퇴직연금 담보대출 허용, 위험자산 한도 단계적 상향을 검토한다. 다음 달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.
- (중략) 최대 70%로 묶인 퇴직연금 위험자산 한도를 IRP와 DC형부터 80%, 90% 등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.

2. 설명 내용

-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,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포함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검토 중임.
- 퇴직연금 담보대출 허용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및 위험자산한도 단계적 상향 추진은 확정된 바 없음.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	책임자	과 장	남성욱 (044-202-7553)
		담당자	서기관	남덕현 (044-202-7657)